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의 선교 전략 및 목표

성경말씀: 마10:5-8

어느덧 봄이 되고 4월이 찾아왔다. 꽃 세상(7장 사진). “또 1년이 지났구나.” 시간이 매우 빨리 지나간다.

얼마 전 일이 있어 우리 부부가 부평 지역으로 가면서 부천 송내역 근처의 지하 차도를 건너가게 되었다. “여기에 교회를 세운 지가 이제 15년이 되었네.” “지금 처음 예배당을 찾으라고 하면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날 홍승대 형제님 부부 대화, 감사하다. 시간이 빨리 간다.

2008년 시작 2012년까지 송내에서 4년

그리고 2012년 4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약 6년 반 논현동 소래 예배당

그 뒤로 약 4년 반, 서창 캠퍼스, 약 130억 원(1,500명 수용), 이제는 성도 수가 증가하여 주일 오전에

1,000여명 참석, 유튜브 구독자 36만명. 전 연령대, 신학원 공부, 주일 학교, 콰이어 등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지난 15년 동안에 일어났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의 다수, 유튜브 동영상, CD, 소책자 등 무료로 배포하는 미디어 선교 자료 올해에도 더욱 더 무료로 배포하는 미디어 선교 자료 늘리려고 한다.

오늘 < >, 왜 우리는 많은 돈을 미디어 선교에 쓰는가? 선교의 목표, 모든 성도들과 공유하려 한다.

본문 강해

마10장에는 1-4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정하시고 그들을 파송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다. 오늘은 본문 강해라고 하기보다는 선교 혹은 전도의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한다.

1. 5-7절: 당시 왕국의 복음, 메시아가 왔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복음을 선포하라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 경륜이 바뀌면서 교회 시대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간다. 마28:19-20
2. 8절: 하늘의 왕국의 복음 선포, 특징 표적과 이적, 이스라엘 중심, 표적과 이적은 메시아 시대, 교회 시대 초기, AD 90년 이후에는 이런 선물들이 사라짐
3. 8절: 선교 혹은 전도의 철학: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freely ye have received, freely give.” (*)
왕국의 복음이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든 우리가 선교 혹은 전도를 할 때 늘 기억해야 할 것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4. 9-10절: 한 가지 예외, 전도자들이 먹는 것은 복음을 받는 대상들이 지불해야 한다. 목사 및 선교사 등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바울의 고린도 교회만 예외
5. 8-10절의 원칙에 의거하여 예수님 당시 사도들 선교. 또 교회 시대가 열린 후에 초대 교회 바울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 선교, 전도

핵심: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한다.

지금부터 130년 전, 조선 땅에 많은 미국인 선교사들, 복음 선포, 의료, 교육,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본국에서 조선이라는 나라 들어 본 적도 없다. 그런 나라의 복음 전도를 위해 헌금하고 또 전생을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이 있다.

내일 모레 4월 4일 양화진 미국 선교사들 묘역 방문, 우리 눈으로 확인 할 것이다.

그 결과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하며 여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시작부터 복음 선포를 위해 우리가 만드는 모든 자료는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고 그 일을 위해 미디어 선교 헌금을 작성하고 시행하고 있다.

교회에는 무료가 많다. 커피, 티, 점심 식사 다 무료, 우리 출판사 모든 자료 무료

왜 무료 선교 자료가 필요한가?

사람이 변하려면 정보가 있어야 한다. 선교 혹은 전도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마귀가 그냥 두지 않는다.

바울의 유언 딤후4:2-4

말씀 선포 명령, 이유 3-4,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전하지 못하는 때가 오리니 그들이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 두고 또 진리에서 귀를 돌려 꾸며 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것이 복음 선포, 전도, 선교이다.
특히 마지막 때에는 성경의 근본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 그래서 바른 것을 전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책을 사서 보려고 하지 않는다. 교보 문고 직원 명퇴, 그래서 무료라도 전달해야 한다.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갖도록

미국의 사례

미국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세워진 유일한 나라
처음에 청교도, 장로교인들(구약의 틀 유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회중이 주도하는 신약 교회를 원함,
자연히 성경적인 침례교회들이 생겨나며 대세를 주도함
이러는 가운데 1850년도 이후에 몇 가지 특이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성경 오류 새 성경 필요, 진화론, 안식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이단 등장
다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니 성경 신자들이 당혹스러워 함
예를 들어 목사들을 배출하기 위해 만든 프린스턴, 예일, 하버드 대학 등이 현대주의 사조에 몰들어
성경의 영감을 부인하기 시작함. 현 시대에는 가장 큰 자유주의 신학교가 되고 말.

그래서 이 같은 현대주의 사조에 대항하기 위해 1878-1897년까지 나이에가라 성경 사경회가 열림
그런데 올바른 정보를 목사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생겨남, 목사들이 현대주의 사조에 빠지면 안 되기에

Fundamentals

올바른 정보의 전달을 위해 1910-1915년 사이에 'Fundamentals'라고 하는 책들이 R. A 토레이
등에 의해 편찬됨. 처음에 12권, 위키백과 (*), 1917년에 4권으로 합쳐짐 (*), 근본적인 다섯
가지 믿음을 옹호하기 위한 90개의 글,

펀더멘털 운동이 시작될 때 그들이 주장한 것은 다섯 가지 펀더멘탈이다.

1. 성경의 축자 영감, 2.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과 신성(하나님 되심), 3.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4. 그리스도의 부활, 5. 그리스도의 재림(휴거) 미국 전 교단의 근본적인 저자들의 글

1909년 캘리포니아의 사업가인 스투어트 형제 두 사람(리만, 밀톤, 세대주의자들, 즉 성경 신자들이)
무명으로 자금을 대서 글을 모으고 책을 인쇄해서 미국의 목사, 선교사, 신학교 교수, 주일학교 교장
등에게 25만 세트(날권으로 300만 권)를 보냄,

책 이름이 'Fundamentals'이므로 이 책의 믿음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자연히 Fundamentalist(근본
주의자)가 됨.

이렇게 해서 Fundamental 신앙이 확립되기 시작해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Fundamental Bible
believer라고 한다.

이렇게 했음에도 1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상황이 나빠짐

장로교, 감리교 인본주의 차락, 침례교 내부에서도 인본주의 물결
하지만 이런 노력의 결과로 분리가 일어났다. Fundamentalists, Bible Presbyterian, Bible
Methodists, Bible Baptists, 독립 침례교회, 이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킹제임스 성경, 성경
그대로 믿어야 한다. 몸의 부활과 휴거,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이들에 의해 현재 미국이 겨우 유지되고 있다.

우리 교회의 미디어 선교

우리 교회는 전체 예산의 10분의 1 이상을 무료 미디어 선교, 전체 예산의 15%, 4억원 이상
2022년, 우리도 미국의 성경 신자들처럼 해야 하지 않겠는가? 목사, 신대원생들에게 원하면 무료로
킹제임스 성경을 보내 주자는 계획, 2022년 1월부터 지난 금요일까지 7,337권 무료 배송
모두 스스로 원해서 받아감, 이름 전화번호, 목사 증명서 제출하고

우리는 성경과 개역성경분석 등 무료 책자들을 박스에 담아서 보냄
2023년이 되면서 또 생각, 성경만 가지고는 바른 교리를 알 수가 없다.

바른 교리를 전하려면 책들을 보내야겠다.

그래서 8권의 책을 보내기로 결정함“ 지난 1년 동안 50여 명의 형제/자매들 책들 교정

1. 구원 바로 알기(472쪽)
2. 성경 바로 보기(448쪽)
3.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440쪽)
4. 재림과 휴거: 영원의 파노라마(320쪽)
5.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320쪽)
6. 천사와 UFO 바로 알기(460쪽)
7. 오순절 은사 운동 바로 알기(480쪽)
8. 개역성경분석(220쪽)도 같이 보냄

이 일을 위해 1주일 전에 8종류, 8만 권의 책을 인쇄해서 교회로 가져옴

5톤 트럭 3대, 11통 드럭 2대, 5-60명의 성도들이 나와서 창고에 집어넣고 동시에 8,000세트를 박스에 집어넣어서 포장함

포장 박스에는 편지와 그리스도의 내 교회 팸플렛 (*), (*)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동역하시는 목사님께:

안녕하십니까?

저희 사랑침례교회에서는 목사님들(신대원생들)의 설교 및 강해 준비를 위해 참조하시라고 킹제임스 흠정역 마제스티 성경을 보내 드렸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17절에는 성경기록의 목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doctrine)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주어진 가장 큰 목적은 올바른 교리(교훈이 아니라 교리)의 정립입니다. 바른 교리가 있어야 하나님의 올바른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에서는 미국의 성경 신자들(Bible believers)이 보편적으로 믿고 있는 성경 교리들을 담은 책들을 출간하여 무료로 보내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시간을 내서 한번 읽어 보시면 목회 사역에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평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에 풍성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사랑침례교회 목사 정동수 드림

(*) 동영상 시청

이 모든 일, 집사회와 의논해서 집사 형제님들이 다 기쁨으로 하기로 결정함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성경, 이 일은 영리 목적이 아니므로 그리스도 예수안에 출판사에서 최저 비용으로 제공함
무료 책자들, 역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최저 비용으로 인쇄해 주는 곳을 찾아내어 그곳과 직접 거래함

한국에 목사들 20만 명쯤, 저를 포함해서 집사 리더 형제들의 마음: 모든 목사님들이 성경과 이런 책들 한 세트를 받아 공부하고 성경대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되면 좋겠다.

앞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계속해서 목사, 신대원생들에게 성경과 책들 무료로 보낼 것이다.

두 번째 프로젝트

목사님들에게 변화가 생겨야 하고 동시에 성도들도 깨달아 알아야 한다. 즉 위에서의 변화와 아래에서의 변화 두 가지가 다 일어나야 한국 교회가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누구든지 원하면 무료로 책들과 소책자를 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한다. 3권의 책들, 8종의 소책자들

1. 구원 바로 알기(472쪽)
2. 성경 바로 보기(448쪽)
3.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440쪽)
4. 재림 휴거 바로 알기 100쪽
5. 천주교와 기독교 64쪽
6. 전도 가이드 76쪽
7. 오순절 은사 운동의 역사와 정체 156쪽
8. 창조와 진화 140쪽
9. 칼빈주의 바로 알기 120쪽
10. 천사들의 미스터리 184쪽

이런 세트를 묶어서 보내려고 한다,

목사님들 무료 책자 발송 이후 광고하고 자세한 설명 링크를 만들어서 나누어 주려고 한다.

이런 일 교회가 감당하려면 1년에 적어도 6억 원이 들어야 한다. 6억 원을 무료 자료 배포에 쓰는 것이다. 어떤 분들의 반론: 교회 건축 이후 갚아야 할 빚이 아직 70억 원이나 남아 있지 않느냐, 빚부터 갚아야 하지 않느냐?

우리의 생각: 빚을 갚되 교회의 여윌돈을 모두 빚 갚는 데만 쓰면 안 된다.

기독교인들이 줄고 있다. 성경 신자들이 계속해서 줄고 있다. 성경대로 믿겠다는 교회 계속 감소. 킹제임스 성경, 근본주의 교리 신자들 이대로 두면 감소한다.

이 상태로 10년-20년 지나면 이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들 자체가 없어진다.

나도 은퇴한다. 빚만 다 갚고 나면 콘크리트 덩어리만 남는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씨를 뿌려야 한다. 그래야 10년-20년 뒤에 열매가 생긴다. 이 교회가 그런 성도들로 넘쳐나야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킬 것을 지킨다. 아이들 교육할 수 있다. 미디어 선교 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이 예배당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려면 지금부터 뿌려야 한다. 그래서 성도들이 늘어야 빚도 갚고 사역을 유지할 수 있다.

감사한 일: 교회의 집사들과 리더들이 전적으로 이런 생각에 동의하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함,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이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함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리더들과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결론

예수님의 신약 교회 선교 철학: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한다. 복음, 영생, 천국,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 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거저 받음,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도 최대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해 온 대로 2023년 이후의 미디어 선교가 이런 식으로 사심 없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뿌린 씨가 앞으로 열매가 되어 이 나라와 교회들, 그리고 사랑침례교회를 살리는 원동력이 되리라 믿는다. 기도와 물질로 협조해 주시는 내부 외부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 일을 집행하는 교회 지도부는 투명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일하고 있다.

문의 사항이 있으면 집사회에 문의하기 바란다.

고후13:1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친교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 고린도 사람들